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⑦

가능성의 빛이 켜지다



2022년 4월, 학교에 처음 전기가 들어온 날 수레꾼이 기증한 컴퓨터와 프린터 앞에서 쏘리야 초등학교 교장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초등학교를 지은 지 8년, 중학교를 세운 지 5년이 지난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허허벌판에 마을이 생기고, 마을 아이들의 기초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웠지만 정작 학교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것인가'가 삶의 가장 절박한 문제였지만 수레꾼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사람답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또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학교를 지어 정부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공립화에는 성공했지만, 가난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사들에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사만 교과서를 들고 있고, 아이들은 공책에 연필로 받아쓰기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레꾼은 전교생에게 교과서를 구입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레꾼이 나누어준 교과서를 집으로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다음 학년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자 교사들이 컴퓨터로 수업 자료를 만들고, 프린트물을 나눠주는 교육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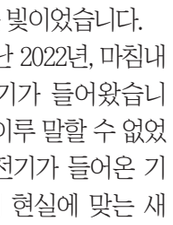
전기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때 쏘리야 초등학교 교장이 말했습니다. "가까운 도시에 나가면 태양광 판을 살 수 있습니다."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때였기에 그 말은 하나의 돌파구처럼 들렸습니다. "얼마입니까?" "80달러면 한 세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뽀디봉 마을에 처음으로 태양광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인근 꼭찬끼리 초등학교 교무실까지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각 교무실에 중고 컴퓨터와 프린터도 한 대씩 놓았습니다. 비록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당시에는 그 무엇보다도 밝고 큰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22년, 마침내 마을과 학교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레꾼은 전기가 들어온 기념으로 캄보디아의 현실에 맞는 새 컴퓨터와 프린터를 각 학교 교무실에 한 세트씩 기증했고, 모든 교실에는 천장형 선풍기와 벽걸이 선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에 제가 "초등학교에 500명, 중학교에 250명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정말 놀랍니다.

학교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불이 켜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성의 빛이 켜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를 붙잡고 숱한 어려움을 함께 견디며 걸어오던 수레꾼은 전기가 들어온 그날 비로소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기술·공예학교의 꿈을 현실로 키워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④ 삶 자체가 수행인 미래 부처님들

부처님 길 따라 꽃피는 학생들

'퓨처핸접(Future hands up)'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모인 미래융합대학 불교동아리입니다. 제도반인 동아리 친구들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여러 자리에서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소개해 왔지만, 조금 특별한 구성원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그전과는 또 다른 울림을 받습니다. 모두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뜻과 내용이 온전한 법을 전하라는 가르침이 매번 새롭게 새겨집니다.

지금의 캠퍼스 전법은 이미 불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불교동아리'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불교와의 거리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불자로 자라 승려가 된 제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지속을 위해 제 모습은 고집스럽지 않고 두루 다양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불교를 소개하는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극소수 불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종교가 없거나 멀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종강 이후 방학을 맞아서야 불자가 되겠다며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뒤늦은 관심의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중 하나는 부처님에 대한 그동안의 개념적 오해였습니다. 아직 불자가 아닌 친구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교 초심자·타종교 학생 전법 동아리
불교 좋아지게 이끄는 일, 지도법사 몫
부처님 가르침으로 '삶 주인공' 이끌 터

그 이유를 함께 다시 바라보는 일, 그 역할이야말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전하기 위해 지도법사가 해야 할 일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좋아서' 스스로 이미 불자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교가 좋도록' 해줘야 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사고의 과정이어서 먼저 동아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솔직한 속마음을 듣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과정과 마음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일상은 종교보다 더 급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학업과 취업, 직장 생활과 이직,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불안과 걱정들. 그들은 여행을 가고 산책을 하며 영화를 보고 SNS를 하는 등으로 스스로를 달래고 그것을 취미라며 좋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저는 조심스럽게 불교를 살포시 얹어만 주었습니다. 여행을 하면 근처 사찰을 찾아 공부하고 체험했습니다. 산책할 때는 걷기 명상을, 공부할 때는 기도와 참선을 했습니다. 관심 수요 조사를 통해 초 만들기 클래스를 하면 촛불 명상을 함께 했고, 음식을 만들면 불단에 공양하도록 동행했습니다.

천백억 화신으로 모든 곳 어느 때나 부처님께서 함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셨고, 필요하면 지혜의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불교는 우리 동아리 부원들의 가족이거나 친구, 또는 가끔 찾는 멘토처럼 일상이 됐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해 왔는데, 희유하게도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에 전법의 장이 만들어졌고, 활동 명분과 방향성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동아리 부원 학생들은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처님과 놀고 부처님과 공부하며 부처님과 상의합니다. 스스로 아껴주고 챙겨줄 수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 너무나 감사한 날들입니다. 더욱 그러할 수 있도록 부담스럽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친구처럼 서로의 취미를 융회하며 조용히 정진해 나가려 합니다.



진관 스님
동국대학교 전법특임교수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⑬ 꽃공양

정수사는 오로지 '꽃문'을 보기 위해 찾아가는 절이기도 하다. 정수사 대웅보전(보물)은 사찰의 꽃살문을 말할 때 거론되는 대표적 건물 가운데 하나다. 앞면 3칸 옆면 4칸인데, 앞면 중 어간(가운데 칸)만 꽃살문이고 양옆은 격자 문살이다. 그래서 꽃살문이 더 돋보인다.

사찰 꽃살문은 문살을 짜맞춘 위에 꽃을 올린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정수사 대웅보전 꽃살문은 (신라 금관처럼) 통판에 투조 기법으로 만들었다. 통나무 판의 4.5㎝ 두께가 만들어내는 입체감은 꽃살문 그 자체를 하나의 조각품처럼 느껴지게 한다. 네 짝 꽃살문 중 가운데 두 짝은 연꽃, 양옆은 모란이다. 화병에 꽂은 모습으로 층층이 꽃이 새겨져 있다.

정수사는 639년(신라 선덕왕 8)에 창건됐다 한다. 희정 스님이 마니산 참성단을 배관한 뒤 동쪽 기슭에 환히 열린 땅을 보고, 선정삼매를 정수(精修)할 곳이라며 절을 짓고 이름을 정수사(精修寺)라 했다. 현재의 대웅보전은 1426년(세종 8년)에 함허 스님이 중창했는데, 이때 건물 서쪽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걸 보고 정수사(淨水寺)로 이름을 바꿨다 한다.

정수사 대웅보전 앞은 툇마루다. 앞에 서서 꽃살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꽃을 바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 꽃병 속의 물은 당연히 정수사의 '맑은 물'이다. 정수사 꽃살문은 '꽃공양'이자 절의 이름 유래를 담은 상징이기도 하다.

손영자 작가



정수사 대웅보전.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